

승오스님의

### 경전읽기

#### 유마경 ②

수행에는 출·재가 구분 있을 수 없지만, 출·재가한 비구(比丘)가 아닌 거사(居士)를 표면에 내세웠을까? 이 물음(유마경)을 읽는 열쇠다. 유마거사는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을 아이 다루듯 하였고, 10대 제자들은 유마거사를 두려워하였다. 유마거사의 문법을 가리는 부처님의 당부를 듣고도 모두가 난색을 표할 정도였다. <유마경>은 그 시대적 배경을 부처님 재세시대로 설정하고 있지만, 유마거사가 당시에 살았던 점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유마거사와 10대 제자를 대립항으로 설정해 대승과 소승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마경>이 중국에서도 많이 인용되었던 이유는, 중국 선승(禪僧)의 생활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유마거사의 재래(再

과 동행하겠다고 따라 나섰다.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마음을 자세히 전하고, 유마거사의 병세와 병의 원인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유마거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간은 무명(無明)과 삶에 대한 욕망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이며, 나도 또한 그렇습니다. 만일 일체중생의 병이 없어진다면 내 병도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생사에 들어가는 것이요, 생사가 있으면 병이 있습니다. 만 일 중생이 병을 여의면 보살도 병이 없을 것입니다."

유마의 병은 중생에 대한 자비심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거짓의 병이라고 할 수 있다. 병을 핑계로 하여 위대한 불이(不二)의 법문을 열고자 했던 것이니. 문수보살과 함께 보살 32명에게 차례로 "불이법문(不二法門, 상대와 차별을 뛰어넘은 절대평등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 승속 초월 '不二법문' 압권

#### 중생이 병을 여의면 보살도 병 없어

來)라고 일컬어지던 선자(禪者)인 방거사(龐居士)가 있다. 재가자로서 자기를 완전하게 하는 것을 지향한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렇듯 유마거사와 선종(禪宗)과는 꺾을래야 꺾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던 것이다.

<유마경>의 내용에 들어가 보자. 바이살리시의 자산가였던 유마거사가 병이 들어 병상에 누워 있었다. 부처님도 유마거사의 소식을 듣고, 사리불을 비롯한 10대 제자들과 미륵보살 등 여러 보살들에게 그를 문안하라고 일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그 소임을 맡을 수 없다고 사절하게 된다. 과거에 유마거사로부터 수행과 관련하여 잘못된 것을 일하게 지적당했기 때문에 또 다시 그런 일을 당할까 염려하여 병문안을 갈 마음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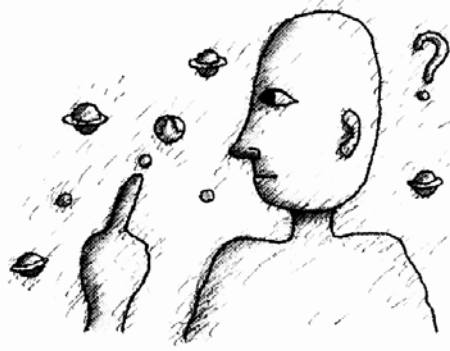
부처님은 마지막으 문수보살에게 그 일을 시킨다. 문수보살은 "유마거사의 상대가 될만한 주변이 되지 못하는 줄 알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 문안을 가겠습니다" 하고는 어쩔 수 없이 부처님의 당부를 받아들이게 된다. 대중은 문수보살

것은 어떠한 뜻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보살들이 자신의 체질과 체득한 견지(見地)에서 생각을 밝히는 심포지움이 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수보살에게 물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말하러 해도 말할 수 없고, 이야기하러 해도 할 수 없고, 알려 해도 알 수 없으며, 모든 물음과 답변을 초월하는 것이 불이의 법문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문수보살은 유마거사에게 "당신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되물었다. 유마거사는 논란 멸종거릴 뿐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주위에 정적이 감돌았다. 이때 문수보살이 "멋지십니다. 정말로 멋지십니다. 문자도 없고 말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불이의 법문에 들어가는 길이로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것이 곧 <유마경>의 핵심이요, 골수이다. 유마거사는 우리에게 대승불교는 출가전문(出家前門)만이 아니고 출가든 재가든 수행에 따른 중득(證得)은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해인사 승가대 교수



그림·문병성

##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

### 불교와 과학 <9>

#### 처음 이전

우주는 무한하다고 한다.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같은 것이 4000억 개 이상이 모여 우리 은하계를 구성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은하계가 우주 지평선 내에서만 1조(1012) 이상 있다고 한다. 그렇게 헤아리기 어려운 숫자 이상으로 우주는 무한하다. 그런데 우주는 원래 그렇게 무한한 것이었는지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우주의 시작은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정도 된다고 말한다. 중간쯤 잡아서 150억 년이라고 말해도 좋다. 150억 년 전에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나, 초기 10-12 초 동안은 원자핵이 형성되기 이전인 스펙트럼의 우주의 모습이었다. 그 후 100초 동안 현재 우주의 많은 규모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나머지 150억 년 동안 생명이 존재하는 오늘에 우주에까지 진화하였다.

같은 맥락에 있다. 그러나 켈로즈-호킹의 특이점 이전의 시간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 이전의 시간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 호킹의 대폭발 이전 시간은 지금과 같이 앞으로만 가는 화살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창조론에서 말하는 창조 이전의 시간은 아예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시간은 현상 속의 시간이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 사람과 함께 한다. 사람의 흐름이

### 과학 최초 우주 대폭발과 함께 시간존재 불교 사물 발생·소멸 따라 시간도 생멸

무상이듯이 시간도 역시 상대적이다. 그런 의미의 시간이라면 불교에서는 시간의 시작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시간의 끝도 없다. 우주가 무한하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우주의 중심이 없다는 뜻과 같다. 그 반대로 그 어디라도 우주의 중심이 된다고 말해도 된다. 중심이 없으면서 동시에 그 어디라도 중심이 될 수 있는 우주가 곧 화엄경이 말하는 우주와 같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도 우주의 한 티끌에 지나지 않지만, 동시에 그 작은 티끌 속에도 모든 우주가 포함되어 있듯이 내 안에 중심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시간도 마찬가지이다.

시간에도 중심이 없다. 그래서 그 끝과 시작이란 없다. 언제부터인지 언제까지인지 원래부터 모를 일이다. 단지 그 무엇이 옷을 바꿔 입고 나타날 뿐이다. 윤회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윤회는 윤회의 멈춤을

희망하고 있으며, 윤회의 시간사슬이 끊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윤회의 끝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윤회의 끝은 다시 열반의 시작일 뿐이다. 그래서 열반에는 시간의 시작이 있었다. 우리는 무심(無心)의 초발심 속에서 아니면 부처 세계의 일상성 속에서 우리가 아직 그 시간의 시작도 해보지 못한 그런 열반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윤회에는 시간의 끝이 있었고 열반에는 시간의 시작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스스로에게 되물어 본다. 윤회와 열반이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윤회의 그늘 속에서도 열반을 보는 사람은 시간의 시작 이전의 무상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열반의 연꽃 위에 앉아 있는 사람도 윤회의 사슬을 함께 나

## 마약·폭력 들끓는 거리 사찰 세워 청소년 선도

### 지구촌 불교 / 美 슬럼가 포교

미국 캘리포니아 스토크튼 시에서 삼좌부 불교계 스님 5명이 마약과 알콜 중독과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삶의 도리와 여유를 심어주고 있어 화제다.

스님들은 지난해 5월 16일 폭력조직과 마약·알콜 중독자들의 거리로 약명 높은 헌터 가(街)에 찬시사마게담(Chanissamd kidham) 사원을 개원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리의 폭력으로부터 아시아계 청소년들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승문 아시타노(Sombun Athitano·주지) 스님은 "우리는 이 사원을, 헌터 가에 살고 있는 아시아계 청소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세웠다"며 "이 곳의 청소년들은 총, 마약, 매춘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승문 아시타노 스님과 아시이계 청소년들.

헌터 가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과 같이 전쟁으로 조국을 떠난 아시아계 난민들이 대거 유입해 살고 있는 거리로, 스토크튼 시에서도 경제적인 여건이 하나 둘 개선되고 있어, 헌터 가의 상황은 예전보다 더 비관적이었다. 더욱이 각 조직에서는 수를 늘리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고 있는 실정이었다.

승문 아시타노 스님은 "대부분의 조직은 청소년들에게 심부름과 같은 비교적 쉬운 일을 시키고 많은 돈을 주고 있다"며 "여기에 길들여진 청소년들이 마약이나 알콜에 중독되고 매춘을 일삼는 등 말년의 길로 들어서고 결국 폭력조직에 가담하고 있다"고 헌터 가의 상황을 설명했다.

### 아시아 난민 거주지 문화·놀이공간 제공

이에 따라 승문 아시타노 스님 등은 유력한 지역 인사들에게 지원을 받아 사원을 세웠고, 사원의 모든 곳을 청소년 문화·놀이 공간으로 공개하고, 주변 폭력배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현재 4백여 평 남짓한 사원은 모래나 접시, 공 등을 가지고 노는 어린이들과 라오스계 록그룹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는 청소년들로 연일 가득 메워지고 있다. 조니 캄만호(Johnny Kammanh·14)는 "무서운 형들을 만나지 않아서 좋다"며 "지난해부터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항상 이 곳에서 논다"고 말했다.

그런데 요즘 찬시사마게담 사원의 스님들에게 한 가지 걱정이 생겼다. 사원을 청소년의 보호처로 삼겠다는 당초 생각은 실현되었지만, 이 곳에서 마음을 닦고 싶은 어른들의 불만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시끄러운 환경에서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시금도 줄고 있어, 가볍게 넘어갈 일도 아니다.

이에 대해 승문 아시타노 스님은 "불교에서 깨달음의 상징인 연꽃은 가장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난다"며 "불만을 털어놓는 어른들에게, 비록 깨끗하고 조용한 사원은 아니지만 부처님의 미소와 불법이 가득한 사원임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五分香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리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가집, 영안실)

### 生氣香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뇨·중풍·혈·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목욕 자기향  
- 관불의식, 관육에 사용  
- 어떠한 의식 전후에 목욕함  
- 상가집, 영안실 일례후에 목욕하면 상문살이 침범하지 않는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동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전화주문도 가능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02) 3446-8148, 659-8148 공급자: 석씨향방

## 초기에 스님들은 과연 어떻게 생활하였을까?

## 초기 불교 교단 생활

부처님 제세시와 일반 직후의 초기 불교 교단 내의 여러 가지 생활 상들을 다양한 전거들을 토대로 정리한 책

출가 및 구족제 제도, 안거와 포살 및 자자제도, 승가의 의식주, 계율, 갈마제도 등 부처님이 제정하신 다양한 제도와 구조, 계율과 생활 모습 등에 대해, 만들어지게 된 동기와 과정,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여법한 절차 및 종류 등에 대해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태원스님 저/신국판양장/348쪽/값 13,000원

## 밀교란 과연 무엇인가?

## 밀교학개론

종합불교 살아있는 진정한 불교로서의 밀교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조명한 책

밀교의 기본적 특징 및 그 전개과정, 밀교의 핵심 중 하나인 다라니와 탠트라 의미, 밀교의 교판론 및 핵심 교리,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한 불신론, 밀교의 상징적 표현인 만다라를 통한 인식론, 밀교의 성불론, 각국에서의 밀교의 전개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밀교에 대한 여러 오해와 편견들을 불식시키고 있다.



종석스님 저/신국판양장/256쪽/값 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터운빌딩 ☎전화: 3672-7181~5 팩스: 3672-7186